

농심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국내라면은 매출 성장 전환 ASP와 수량 모두 성장하는 양호한 흐름. 스낵은 가격인상 효과 17.6월까지 지속. 별도 기준 실적은 전년대비 큰 폭의 개선으로 130~140억원 전망. 연결 기준 미국은 성장 흐름 지속되나 중국의 적자 30억원~40억원 발생에 따라 컨센(200억원)하회 가능성 있음. 다만 4~5월 대비 6월이 회복 흐름인 점과 중국 부진이 사드 리스크 때문인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국내 실적 호조와 국내/해외 하반기 개선 흐름이 예상되는 부분이 긍정적

국내 라면

국내 점유율은 1Q16 54%, 2Q16 54%, 1Q17 56.7%, 17.4월 56%로 2Q17 M/S는 yoy 상승 기대. 하반기로 복음면 타입의 신제품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외형 성장 이끌어 갈 전망. 1Q17이후 가격 경쟁 완화되면서 ASP 인상분이 정상 반영되고 있음. 밀가루 가격 하향 안정 트렌드로 GP 마진 개선도 지속. 주력 제품들의 매출이 회복세 예를 들어 짜파게티는 월 80억원 수준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월 100억원 수준으로 회복 중. 프리미엄 매출이 일시적으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반면 스테디셀러 제품 매출은 회복세

NPB 제품 출시. 굴소스 복음면(이마트 판매) 마진을 양호함. 카레라이스누들은 감가비, 재료비, 광고비 부담이 있는 반면 NPB 제품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있어 판촉비, 광고비 부담이 적음. 현재 유통채널별 비중은 소매점 28%, 대형마트 20% 초반, CVS 11%, 슈퍼마켓체인 9%, 직거래 7%, 농협(하나로마트) 6~7%. 온라인 비중 2%에서 서서히 늘고 있음

국내 스낵

16.7월 7~8% 가격인상 효과 남아있음. 최근 성장세 5~9%, Q 성장은 로우 싱글인데 하반기에 가격인상 베이스 소멸을 신제품 출시 + 리뉴얼(조청유과 등)로 대응할 계획.

해외 라면

중국은 사드 이슈로 2Q17 실적 부진. 매출액 20%~30% 역신장 가능. 리테일러 비호적인 환경(반품 등) + 일부 소비단체의 불매운동 영향이 반영. 매출 감소 및 반품에 따른 악성재고 처리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예상. 중국 4~5월대비 6월 매출이 증가세인 점은 긍정적이거나 3Q17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볼 시기

미국은 매출액 하이싱글 성장 예상. 기존 채널은 품목 늘리고 중부, 동부, 히스패닉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현재 17% 점유율 20%까지도 달성 가능할 전망. 미국 가동률 70~80%로 투자 필요 고려해야할 시점으로 판단

일본은 매출액 20% 성장에 영업이익 2억원 예상

생수(백산수)

꾸준히 10~20% 성장 중. 시장 수요 확대 시 삼다수는 풀캐파기 때문에 백산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 매출액 13년 170억원 → 14년 280억원 → 15년 360억원 → 16년 600억원으로 성장. 17년은 700~750억원 기대. 중국 매출은 약 100억원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29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29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29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